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발해유적지’

연해주내 발해유적지는 19세기 중엽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다으며, 1950-60년대부터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학자들도 발굴에 참여하고 있다.

연해주에서 발해유적지 발굴은 그동안 주로 크라스키노(하산군), 우수리스크, 파르티잔스크 등지에서 이루어졌고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블라디보스톡 소재 박물관(극동연방대,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박물관, 연해주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 크라스키노 유적지

- 크라스키노성(염주성)은 발해의 62주 중 하나로 19세기 중반 그 존재가 알려진 이후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과 러시아 학자들이 거의 매년 공동 발굴에 참여하고 있다.



2. 우수리스크 유적지

- 우수리스크는 발해 15부의 하나였던 솔빈부 관할지역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성터(유즈노우수리스크, 크라스노야로프) 및 절터(코르사코프카, 아브리코스, 코피토)가 발굴되었다.

3. 파르티잔스크 유적지

- 1970년대부터 극동국립대 학자들에 의해 스쵸클라누하성터(산성 및 평지성)와 니콜라예프카성터(평지성)가 발굴되었다. 아직 정식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초기 철기시대부터 발해를 거쳐 금나라 때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규모로 보아서 발해 때에는 현급(縣級) 행정구역의 소재지였을 것이다.



4. 기타 유적지

- 이밖에 카발레로보군(사도브이 클류치, 우스트 사도바야 유적지), 키로프군(크라스나야 소프카 유적지), 야누치노군(노보고르데예프카 성터) 등에서도 발해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 사진 출처:

크라스키노 유적지

(<https://www.google.ru/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iLx8CK3-TJAhUFPRQKHbpsDxQQjxwIAw&url=http%3A%2F%2Fyang-jjoon.blogspot.com%2F2013%2F10%2F5.html&bvm=bv.110151844,d.d24&psig=AFQjCNEw-rQqnQnBL2tkxVgu2LW3DV3UUQ&ust=1450505193369982>)

파르티잔스크 유적지

(<http://tadream.tistory.com/6964>)